

공동체는 발명되어야 한다

서울시 마을미디어 형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김예란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김용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백영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조교수
김유정 문화방송 편성국 전문연구위원

서울시 마을미디어에 관한 분석작업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공동체의 생성 원리는 본질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하나이지도 않으며 각기 고유성과 서로 간의 상이성을 띠는 점, 둘째, 공동체 생성에 있어 역사적 맥락성, 사회적 조건성, 문화적 정향성, 주체의 의지와 열망의 접합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 셋째, 공동체의 형성에는 상이한 권력과 욕망이 전략적으로 연동한다는 점, 넷째, 공동체의 생성은 공동체의 활동, 특히 소통적인 활동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공동체는 곧 소통과 동의어라는 점, 다섯째, 공동체는 사회의 순조건 안에서 배양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태성, 부정성, 한계성을 껴안으며 되어가는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고유한 감수성과 표현성을 생성하면서 특이한 문화적 언어를 표현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동질적이고 동질적 총체로 단순화하는 대신, 이질적인 타자들 사이의 접촉과 해리, 수렴과 발산, 동일성과 차이의 계속되는 역동으로서 공동체를 개념화할 수 있다.

KEYWORDS 서울, 마을미디어, 공동체, 접합, 문화적 특이성

* 본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 3046058). 또한 이 논문의 초기 원고는 2016년 한국언론정보학술대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고, 이후 전면적인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음.

** yeran@kw.ac.kr, 제1저자

1. 공동체는 발명되어야 한다: 서울시 마을미디어 형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서울 곳곳에서 ‘마을’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일에 익숙해졌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주도하는 서울시의 중점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상기하기도 하고, 혹은 한 정부단체의 일시적인 정책효과의 차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안적인 생활양식의 출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서울의 마을을 보는 시각도 상이하다. 한편에서는 서울에 등장한 다수의 마을들이 서울시 정책의 산물로서, 공동체가 통치의 목적으로 ‘도구화’되는 양상을 비판한다(박주형, 2013). 다른 한편에서는 주거, 양육, 교육, 안전 등 삶의 기본적인 틀이 흔들리고 양극화되며 경쟁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마을이 다른 삶의 찾기 위한 ‘답’으로 제안되기도 한다(예컨대 2016년 9월, <경향신문>의 ‘우리 마을이 답이다’ 연재기사). 성미산 마을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인 유창복은 마을과 행정을 오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의 또는 타의로 주변화된 사람들이 대안적인 복지, 교육, 경제, 예술, 소통의 방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진화된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행복한 마을’을 제안한다(유창복, 2014).

그 현상에 어떠한 입장을 지니든 간에 마을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형성된 지역공동체를 상징하는 단어로 되어가는 현실을 부정하기는 힘들 듯하다. 지역공동체는 특정한 역사적 흐름과 장소성 안에 배태되며,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요인들의 상호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조건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행위양식을 통해 구성된다. 따라서 오로지 하나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거나 단일한 힘의 작용에 의해 획일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서울의 마을공동체의 등장을 다수의 상이한 정책, 제도, 조직, 행위자적인 요소들이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 특정한 역사적 산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1세기 서울은 식민시기와 해방에 이어 전쟁을 겪었고 이후 압축적인 근대화의 기류 속에서 급격한 속도로 건설된 거대도시다. 이러한 도시 풍경의 변화 속에서 천만 명 시민들의 삶의 양식 역시 빠르게 변화해왔으며, 현재의 그 모습은 종종 전통의 해체, 개인주의, 경쟁의 심화, 위험사회의 어휘들로 묘사된다(신현준·이기용, 2016). 이처럼 근본적인 변동 과정 속에서, 흔히 상상하듯, 오랜 세월동안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우리가 되찾거나 되돌아갈 공동체의 존속이란 실제로 가능할까? 이는 어쩌면 공동체에 대한 향수어린 희망이나 환상은 아닐까(김예란, 2016; Nancy, 1986/2010). 이 물음에 대해 본 연구는 공동체란 본질적인 실체이거나 자연스러운 소여가 아니라 특수한 맥락성 안에서 기획되고 생성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한 걸음 더 밀고 나간다면, 공동체는 발명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에 상술되듯이, 지역공동체 즉 마을에 대하여 통치권력으로부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대중들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발명’을 일구려는 욕망과 의지가 다양한 형태로 발의, 발현되었다. 이렇듯 상이하고 때로는 충돌적인 의지와 욕망들이 접합하며 지금의 도시풍경을 이루는 마을을 형성했다. 따라서 21세기 서울에서의 마을의 생성이란 단지 통치권력의 산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시민들에 의해 길러진 자생적인 산물인 것만도 아니다. 통치권력과 시민의 접합적인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이다. 아울러 그러한 접합의 경험은 만들어가고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적 주체들의 형성을 이끈다.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 순수하거나 완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결여되고 불충분하기에, 그러한 결여와 갈등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공동체적 삶이 더욱 유의미해진다. 따라서 공동체란 누구와 더불어 태어나고 죽는가, 그 수고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부대끼며 살아나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윤리적 함의를 안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마을공동체는 당대의 특정한 정치사회적 힘들의 접합이라는 구조적 층위와 함께, 공동체적 존재 양식과 실행 방식을 성찰하는 윤리적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획은 공동체의 철학적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에서 출발하여 점차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이론적 구성이 전반부를 이룬다. 이론적 접근의 한 축은 사회의 상이하고 다양한 요인과 관계들의 접합에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방식을 비판 사회과학 관점에서 설명한다. 다른 한 축은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사유로서 미완의, 그러나 필연적으로 항상 노력되어야 하고 기다려져야 하는 공동-내-존재에 대해 논한다. 연구의 후반부는 한국사회 특히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로 구성된다. 이질적이고 충돌적인 요소들 간의 접합이라는 사회적 과정과 고통을 품은 의지와 열망의 과정이라는 철학적 가치가 결합하는 공동체의 실재를 서울의 마을공동체 실천 과정에서 살펴본다. 아울러 이론의 추상적 차원에서는 짚어질 수 없는 현실의 구체성들이 현재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도출되며, 특정한 공동체 실천에 내재한 역사적 맥락성 및 특이성이 고찰된다. 사례연구는 서울에서 특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 개 마을미디어 조직(강진숙·이은비, 2013; 반명진·김영찬, 2016)에 주목하여 ‘마포FM’, ‘창신동 텨’, 성북구의 ‘와보송 TV’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 대한 탐구는 이론적 논의에 상응하여 공동체의 사회적 접합과 공동체의 문화적 특이성의 두 개 층위로 구성된다. 사회적 접합 영역에서는 정책, 제도, 기관과 조직, 개인들 간의 접합을 통해 마을미디어가 역사적 실체로 현실화된 방식을 설명한다. 문화적 특이성의 영역에서는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개인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상처 입은 주체들이 서로 공통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집합의 고유한 장소성, 문화적 감수성, 나아가 소수성의 문화정치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해석한다.

2. 공동체의 존재론: 관계와 창발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공동체는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공동체란 절대 혼자일 수는 없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라틴어 어원을 따라가보면, ‘커뮤니타스(communitas)’는 개인적, 사적의 반대어로서, 하나 이상의, 다수, 모두에게 속함, 혹은 공공의 의미를 지닌다. 이보다 덜 명확하지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의미로 커뮤니타스의 어원적 요소인 ‘무누스(munus)’는 ‘주다’, ‘빚’의 뜻을 지니는데, 이런 점에서 공동체 개념 안에는 ‘의무로서 주다’라는 책임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들의 결합으로 공동체란 베푸는 것을 책무로 하는 다수적이고 공통적인 존재 양식이라 이해할 수 있다(Esposito, 2010).

한편, 조지오 아감벤(Agamben, 1990/2014)은 ‘도래하는 공동체’ 개념을 제시한다. 아감벤의 도래하는 공동체 개념은 공동체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미리 주어지지 않은 것임을 전제로 한다. 공동체란 부재의 상황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자리 잡는 무엇은 우선 존재하거나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로 열려 있는 ‘임의적’인 것이다. 임의성의 라틴어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퀴드리벳(quodlibet)에는 ‘무엇이든지’라는 느슨한 전제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 아울러 아감벤이 더욱 강조하는 임의성의 의미는 ‘그러함/그렇게 존재함’으로 풀이되는 존재의 ‘특이성’에 있다. 마치 연인들이 이러저러한 술어를 필요로 하지 않은 채 그 자체 그대로 사랑하듯이, 바로 그러한 특이성에 대한 열린 수용성과 그렇게 되어감의 자유가 임의성을 이룬다(9~10쪽). 공동체가 임의성과 특이성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제안하면서, 아감벤은 바로 그러한 자유, 사랑, 고유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관계들로 엮인 다수를 도래하는 공동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앞서 확정된 외부적 정체성에 귀속되거나 규정되지 않는다. 공동체는 오로지 도래하는 것이기에,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임의대로 되어가는 존재들이 자체의 특이성을 구현해가는 과정에 있다.

장-뤽 낭시(Nancy, 1986/2010)에게 공동체는 ‘무위의 공동체’로 명명된다. 이는 형이상학적 주체의 논리에 의해 침탈된 공동체의 의미를 새로이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다. 무위의 공동체는 존재의 한계에서, 주체의 외부에, 개체의 유한성 너머 만들어진다. 공동체는 흔히 생각되듯 자율적인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집합이 아니다. 타자를 마주한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음으로써 해체되는 주체들의 관계라는 점에서, 불완전하고 결핍된 존재들의 ‘찢긴 상처’가 만나고 섞이는 관계가 공동체를 이룬다(29쪽). 존재가 있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이다. 즉 공동체가 존재에게 기입됨으로써 비로소 ‘공동-내-존재’가 생성된다(32쪽).

낭시는 현대인들이 흔히 지니는 전근대의 공동체에 대한 향수어린 환상을 거부한다. 그에 의하면 ‘공동체는 자리 잡았던 적이 없었다’(Nancy, 1986/2010, 40쪽). 전통적인 공동체(게마인샤프트)가 파괴되면서 사회(게젤샤프트)가 건설되었다는 식의 사고는 오히려 근대 이후 ‘상실된 공동체라는 환상’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생겨난 파생물에 불과하다. 공동체는 이미 존재했다가 사라져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물음·기다림·사건·명령’이다(2010, 40~41쪽).

타자를 향해 되어가는 공동체, 혹은 타자를 통해 도래하는 공동체란 나눔과 검침의 관계를 가리키는 ‘분유(分有)’와 ‘소통’을 매개로 한다. 이미 중심을 차지하는 주체란 부정 되었으므로, 이제 주체의 자리 대신 ‘소통의 자리’가 있다. 이 자리는 하나의 이름으로 획정 되거나 명명될 수 없다. 소통의 자리에서는 주체도, 연합도 아닌 공동체가 생성된다(Nancy, 1986/2010, 67쪽). 이로써 ‘세계-내-존재’임은 이미, 언제나 ‘세계와-함께’, 즉 ‘공존’을 근거로 한다(Esposito, 2010, p. 93; Heidegger, 1962, pp. 118~119).

지금까지 살펴 본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사유들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 이에 창발적이고 관계적인 관점에서 공동체 발명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우선 공동체는 미리-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되돌아가거나 회복해야 할 공동체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그 시점과 위치가 언제이든 어디이든 공동체는 항상 되어져가고 도래할 것이다. 공동체 구성의 종결 지점은 항상 유예되는 지평으로서 유의미하다. 이어, 공동체가 지금 있지 않은 것이라면, 그래서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어떤 질료를 가지거나 무엇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지가 문제시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내적 본질을 버리고 개체의 바깥에서 타자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공동체가 자리 잡게 됨을 확인했다. 공동체는 독립되고 자율적인 개체들의 연합이 아니다. 찢긴 상처를 안고서 서로 품으며 드러나는 ‘공동-내-존재’다(Nancy, 1986/2010). 임의성(무엇이든)과 특이성(바로 그것)을 동시에 함축하기에 공동체에는 보편성과 차이가 함께 살아 있다(Agamben, 1990/2014). 이처럼 임의적이고 특이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도래하는 과정은 분유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소통이란 없으며, 소통은 고립들 사이에서, 그들을 넘어서 이루어진다(Nancy, 1986/2010). 함께 드러남, 더 붙어 자리 잡음이라는 말뜻 그대로, 공동체란 분유와 소통의 동의어다.

이제 창발적이고 관계적인 공동체가 현실사회에서 실제 생성되고 운동하는 과정을 탐구할 순서가 되었다. 공동체가 진공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이질적인 힘들의 충돌과 교섭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사건이 현실사회에서 발생하는 국면과 역동을 세심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공동체의 사회학: 접합의 관점에서

사회에 현존하는 공동체를 투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특정한 정치 상황에 위치한 커뮤니티를,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 작동하는 정치의 복합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보고 승인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과거에 존재했던 향수어린 대상으로 상상되는 낭만화된 공동체와는 달리, 현실적인 공동체는 항상 필연적으로 갈등의 요소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쇼(Shaw, 2008)에 따르면 현재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에는 여러 상충적인 짝패가 섞여 있다. 예를 들어 개인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뿌리, 지역성, 정체성,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복지주의’와 ‘자율주의’; 추상적 가치로서 ‘공공성’과 대중의 살아 있는 ‘경험’; ‘전문화’와 ‘자발적 행동주의’; ‘정책’으로서의 커뮤니티와 ‘정치’로서 커뮤니티 등이 혼재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쇼와 마틴(Shaw & Martin, 2000)은 커뮤니티를 보는 두 가지 축으로 커뮤니티 개발(community development)과 커뮤니티 활동(community work)을 제시한다. 커뮤니티 개발은 정부 및 제도 주도적이며 커뮤니티를 통치의 대상으로 통합, 흡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향식 접근 방식을 가리킨다. 이와 달리 커뮤니티 활동은 커뮤니티 구성원 주도적이며, 정책의 틀 안에 있으면서도 대중적 관심과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룬다. 커뮤니티 활동은 상향식 접근으로, 시민사회와 정부의 중간 지대에서 양자의 매개 역할을 한다.

쇼와 마틴(2000)에 의하면, 20세기 중반 이후 공동체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네 개의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다. 사회민주주의, 구조주의 비판, 시장화, 민주주의 재생이 그것이다.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공동체 활동은 시민권을 재구성하는 기획으로 이해된다. 이때 공동체는 미시적 경험세계와 거시적 구조를 연결하는 창의적 공간이자 매개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정치의 공적 공간을 체험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다. 구조주의 비판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와 계급의 모순을 커뮤니티의 단위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안에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자본주의 국가가 구조적인 계급갈등을 커뮤니티의 틀로 축소, 환원하고, 국가가 구조적으로 혁신해야 할 사회문제를 공동체의 소관으로 떠넘기면서, 개인적 선택과 결합의 문제로 왜곡한다고 보기 때문에 공동체 기획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적 국가 체제에 반대하는 점에서는 첫 번째 입장과 동일하지만 오히려 그에 대한 대항 단위로서 커뮤니티를 급진화한다는 면에서 서로 구분된다. 시장화는 특히 영국 신노동당이 주도했던 ‘제3의 길’에서 발견되는 경향으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커뮤니티의 자력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독려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시민은 소비자 내지 고객으로 변질되며, 공공 혹은 시민의 공간은 유사 시장화

한다. 국가는 단지 최소한의 규제 기능을 담당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적 재생은 현재 거의 실효를 잃은 대의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여기에서는 시장화나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자유로운 커뮤니티의 건설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을 추구한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시각들의 복잡한 논의를 정리한다면, 공동체 기획에 반대하는 구조주의 비판 입장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각들이 공동체를 현재 사회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입장이 기대하는 대안적 가치에 각기 차이가 있다. 공동체 모델로 자본주의 경제의 한 단계 발전을 꾀하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시장화)이 한편에 위치한다면, 다른 한편에는 정치적 가치에 기대를 거는 입장(사회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재생)이 존재한다. 후자의 정치적 가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정치의 보다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가능성으로서 시민권을 강화하거나(사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대체로서 공동체의 직접참여를 강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조주의 비판의 또 한 지류인 공동체 급진화 기획은 자본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국가 형태에 대해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개혁 혹은 혁명을 공동체 건설의 창발로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렇듯 공동체에 대한 여러 시각들을 분별하고 아우를 때 현실 속의 공동체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공동체란 단일하고 균질적인 단위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을 가로지르며 작동하는 '권력'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Shaw, 2008, p. 27). 네 개의 상이한 시각들은 각기 이질적이고 때로는 충돌적인 권력들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가운데 공동체가 생성, 작동되는 현실의 복잡성을 알려준다. 공동체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는 현 자본주의의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국가의 역할이 왜곡되며 공공성과 시민권이 시장의 지배력에 의해 축소되는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대안으로서 공동체가 제시되는 상황을 시사한다. 그리고 공동체가 동질적이거나 조화로운 완성체가 아니라 현 사회질서의 모순을 그대로 떠안고 그 조건 위에서 기획되고 더 나아가 발명되어야 하는 것임을 적시한다.¹⁾

1) 이 연구가 제시하는 공동체 발명이라는 요청은 신자유주의 이념이 지배하는 후기자본주의 체제에서 하나의 정치적 대안으로 특히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역사적 단계에서나 공동체는 발명되어져 왔다. 일부 예만 보더라도, 베네딕트 앤더슨(Anderson, 1983)의 '상상적 공동체' 개념이 시사하듯이, 근대 국가라는 공동체는 그 존재에 대한 상상을 구성하고 발동시키는 사회정치적 역학 속에서 형성되고 실천되어 왔다. 집성촌과 같은 전근대적인 공동체 역시 특정한 가문, 혈족, 신분의 질서를 구성·배치하고 집단 대내외적으로 일정한 교환과 거래의 질서를 구축하고 지역적 동질성과 외부와의 차이를 경계짓는 방식을 구축하는 행위들을 통해 구성되었다. 따라서 전근대적, 근대적, 현대적 공동체 등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상이한 공동체들은 그 구체적인 형성 방식과 조건에서 차이와 특수성을 분명히 지니지만,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공동체의 대한 사회학적 인식에 근거할 때, 본 연구가 집중하는 마을공동체 역시 안전한 공간에 안주하는 조화로운 공동체가 아니다. 정책과 정치의 상충, 경제적 곤란, 기업 및 다른 기관들과의 이해관계 등 복잡한 조건 안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의 내부에는 계급, 계층, 이념, 문화 등의 다양한 범주에서 이질적인 사람과 조직들이 살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마을 안에는 장소를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공통성만큼이나 다수의 이질성이 공존한다. 이렇듯 안팎, 그리고 경계를 가로지르며 존재하는 공통성과 차이가 마을공동체에서 어떻게 공존, 분리, 타협되는지 그 현실에 대해 진지한 이해를 시도하겠다.

4.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탄생

서울의 곳곳에는 어떠한 방식과 모습으로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그리고 이렇듯 오랜 삶의 과정에서 일상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를 암묵적인 바탕으로 삼아, 서울시의 정책적 산물로 ‘마을공동체’가 기획, 설계, 형성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서울의 마을공동체란 자연적인 산물이기도 하지만 서울시가 주도하고 여러 갈래와 방향의 요소와 관계들이 결합하면서 구축된 사회적 구성물이기도 하다. 이렇듯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사건으로서 마을공동체의 생성에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접합했다.

우선 정책 차원에서 서울의 마을공동체 ‘사업화’는 2012년 즈음하여 박원순 시장의 주도하에 본격화된다. 이 계기에 이전부터 있어왔던 대안적인 시민운동이 서울의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수렴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 해 3월 15일 공표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다소 권위적이고 규범화된 어조로 마을공동체의 건설을 공표한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가 규정하는 마을,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라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지닐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점에서 발명이라는 주제를 공통적으로 함축한다.

여야 한다'고 규정된다. 이처럼 다분히 규범적인 성격으로 정의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는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 해당 항목(예컨대 주거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 기업 육성,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등)이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집행 기관(마을공동체 위원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 조직되어,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초조사,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일꾼 육성, 홍보·전파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시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조직들이 '매년', 그 성과를 '분석·평가'하도록 정해졌다.

서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주체가 되기를 지원할 뿐 아니라 규범화·의무화(예컨대 '해야 한다'는 어조)한다. 이는 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자율을 '허용'하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논리를 지닌다(허용 받아야 하고 요구되는 무엇이라면 그것을 과연 자유나 자율이라 부를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정책 프레임에서 공동체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서술된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에서 공동체란 통치체제에 의해 배양되고 추진되는 시민의 자발과 참여라는 이중성을 띤다.

서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는 서울시 당국뿐 아니라 이에 방향성을 공유하는 시민단체, 조직, 개인들이 합류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마을공동체와 마을미디어 영역에서는 <미디어엑트>가 주요 교육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김희영 미디어엑트 마을미디어 교육 실장은 공동체, 비영리, 공동체 소유, 사회적 기능, 생활이나 특정한 가치 공유 등의 요소들로 마을미디어의 의미를 설명한다(김희영, 2014). 따라서 '마을미디어'란 '마을'이라는 삶의 공간을 주요한 배경으로 삼으면서, 공동체의 소통과 이슈를 담아내는 공동체의 미디어로서 개인과 공동체, 마을과 미디어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수단으로 정의된다(김희영, 2014). 김희영에 따르면 미디어엑트가 추진한 마을단위 미디어교육 사업(예를 들어 <우리마을미디어 문화교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마을미디어 등장 이전에 존재했던 미디어교육 활동들과 구분되는 차별성을 지닌다. 그리고 교육의 참여자, 운영자, 교사, 기획자가 모두 마을 내부에 거주하여 기획, 운영, 교육이 모두 주민들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 주민이 직접 예산 구성 및 집행을 한다는 점 등이 마을미디어 사업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설명된다. 미디어엑트가 주관한 미디어 교육을 받은 후 수강자들 중심으로 서울 30여 곳의 마을에서 TV와 신문 등을 다루는 미디어 동아리들이 구성되어 활동 중인 것으로 그 성과가 평가된다. 이로부터 마을미디어 교육 사업에서도 주민의 참여와 자생이 중요한 정책의 목표와 가치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다분히 정책주도적인 성격이 강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 비판적 고찰이 행해졌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담론에서는 권력이 시민에게 자유를 허용, 촉

진, 요구하는 방식이 강조된다. 이 점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참여를 촉진하고 경쟁의 자유를 부여, 강화하는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는 통치성의 관점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이 비판되었다. 박주형(2013)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이상화’하거나 ‘낭만화’하는 경향을 우려하면서, 이를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저항하는 ‘해방적 정치’의 일환으로 일면적으로만 이해하는 태도”를 문제시한다(박주형, 2013, 8쪽). 그의 시각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시민 각자를 자기 경영의 주체인 ‘기업화된 자아’로 만들면서 타인에게 봉사할 것을 요구하는, 니콜라스 로즈(Rose, 1996)의 개념인 ‘공동체를 통한 통치성’의 하나로 진단된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인 기류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계발하도록 강요받는 주체’와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강요받는 주체’라는 “전혀 상관 없어 보이는 두 주체들”이 “마을공동체라는 공간적 범주 안에서 모순적인 하나의 주체로 간단하게 결합”된다는 것이다(박주형, 2013, 17쪽). 그 결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틀 안에서 공동체는 ‘도구화’되는 결과에 처한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주체를 육성, 계발,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성격을 분명히 지닌다.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통치성 비판의 관점이 몇 가지 지점들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통치성의 구조가 균열이나 변화라고는 발생할 수 없는 불변의 획일적인 체계로 상정되는 문제가 있다. 현실에서 정부가 세운 정책은 원래의 모델 그대로 구현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첫째, 어떠한 권력도 완전하지 못하여 모든 대상을 원안대로 통제할 수 없으며, 둘째,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등장하고 개입하면서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셋째, 여러 층위로 존재하는 정책결정자 및 마을 주민을 포함한 일반 실행자들의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양식 및 교섭방식에 따라 여러 변양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이 사회적인 요소들과 ‘접합’되는 역동적 과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스튜어트 홀의 설명처럼 접합은 ‘필연적인 상응’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을 재활성화하는 우발성에 근거’를 두는 사회작용이다(Hall, 1996, p. 14).

정책 비판에서 원용되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도 본래 권력의 역동성과 복잡성에 대한 인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푸코는 권력을 전략의 관점에서 기술하는데, 왜냐하면 권력은 항상 사회적인 몸들과 공존하고, 권력관계는 여타의 관계들(생산관계, 친족관계 등)과 연계되며, (처벌이나 금지를 포함해 나타나는) 권력 실천의 양태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흔히 권력의 유일한 형태로 오해되는 지배는 실상 권력의 여러 형태 중 비교적 일관된 전략으로 조직화된 한 유형에 해당될 뿐이다. 권력관계란 저항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저항 역시 권력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작동한다(Foucault, 1980, p. 142). 또한 권력을

허위적이거나 상상적인 것으로 피상화하는 오류도 피해야 한다. “정치적 문제란 실책, 환영, 소외된 의식이나 이데올로기 따위가 아니다. 진실 그 자체다.”(Foucault, 1980, p. 133)

이렇듯 권력의 개념을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모델로 이해할 때, 서울시에 형성되는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권력 관계에 대해 보다 흥미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방식과 기능을 지녔다. 그러나 이는 한 정치가나 단일정권의 이념에 따라 간단하게 세워지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특정한 조건 안에 편재하는 지극히 미시적인 관계들이 연동하면서 구성되고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Foucault, 1980, p. 189). 그리고 그 결말 역시 지배권력이 지시한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 그대로 진행되거나 종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푸코의 사유에서 ‘정치적임’의 의미다. 따라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어떠한 방향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복잡한 사회관계와의 연동 속에서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낳을지는 항상 미결의 상태로 열려 있다.

서울의 마을공동체의 출현은, 각자 그에 부여한 의미와 목표는 다를지라도, 공동체를 추구하는 여러 상이한 힘들이 집결되어 현실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동에는 다양한 권력과 욕망이 공존·연동한다. 그 국면에는 통치권력의 욕망, 피통치자들의 존재론적인 욕망, 시민단체를 포함한 중간집단들의 욕망들이 무수히 존재하며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중요한 관건은 이렇듯 상이한 욕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합하여 마을공동체라는 현상이 부상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일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공동체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의 네 개 입장을 통해 서구사회에서도 국가 자본주의의 실패에 대한 자각과 함께 그에 대한 탈출구로서 공동체가 대두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동시대적으로 부상하는 공동체 기획이 현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인지 혹은 현 지배질서를 더욱 강고하게 하는 수단인지가 여전히 논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복잡성은 지금 한국사회에도 적용된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통치성 구축의 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권위주의적 전략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자생적이고 자연스러운 열망, 의지, 추진력 또한 발견된다. 기성질서에 좌절한 ‘우울한 세대들’이 공동체로 모여들고 있으며(유창복, 2015) 한국의 위험사회가 보장하지 못하는 삶의 가치, 질,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새로운 형식의 공동체가 강렬하게 요청되고 있다(김대천, 2012). 이렇듯 서로 동기와 목적이 다를지라도 우연처럼, 혹은 필연처럼 공동체로 수렴되는 사회적 움직임들이 현존하며 이는 서울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실천되도록 하는 접합적 조건 및 실행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이질적인 다수 권력과 욕망이 접합하는 지점에서 발명되는 마을공동체의 경험을 세밀하게 탐구한다.

5. 마을공동체를 찾아서: 과정과 방법

이 연구는 3년간(2013~2016) 다섯 명의 공동연구자가 수행한 연구작업의 일부분이다. 연구 시행 당시 가장 풍부한 자료를 포함한다고 판단된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자료집>의 기초조사 단체 리스트(171~175쪽)를 기본으로 하여 인터뷰 대상 단체를 선정했다.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마을 단체 현황 파악을 위해 기초조사 차원의 설문을 실시하면서 이 설문에 응했던 단체들을 목록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집에는 지역 특성 상 마을 단체가 희박한 중구를 제외하고 서울 24개구에 위치한 총 192개 단체가 제시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세 개 마을미디어 조직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기까지 과정을 서술하면,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단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연락을 취해서 단체들의 유형을 교육, 나눔/봉사, 시민단체 지부, 여성/장애인/인권/복지, 환경, 문화예술, 기타 등 7 가지로 분류했다. 각 구별로 적어도 2개 이상의 단체를 뽑되, 가급적 단체 유형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총 22개의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조직이 분석대상으로 선택되었다. 이 집단들을 대상으로 1년여 동안 심층인터뷰를 수행했다. 심층인터뷰 방법을 사용하는 질적 연구는 대규모의 자료를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접근 대신에 연구대상의 특수성과 부분적인 진실을 해석하는 방법을 택한다(Jensen & Jankowsky, 1991/2004). 따라서 서울의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에 관한 방대한 자료들로부터 이 활동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가운데 그중 활동이 두드러지고 충실한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적인 독특성이 돋보이는 창신동 텀, 마포FM, 와보송TV를 본 연구의 심화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터뷰는 각 단체의 주요 활동가를 대상으로 해당 단체 사무실에서 2시간 정도 반구조화된 설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을미디어 활동 동기, 활동 경험, 마을미디어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 및 정치 질서와의 관계, 대내외적인 네트워크 관계, 향후 계획(Kim & Ball-Rokeach, 2006) 등에 관해 반구조화된 질문 방식으로 폭넓게 질문하고 자유로운 답변을 들었다.

마을공동체나 마을미디어 조직에 관해 심층인터뷰 방법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3~5 명의 비교적 소수의 인터뷰 참여자가 나타나는 경향이 보인다. 이 연구에서도 4 명의 마을미디어 활동가를 만났다. 이처럼 인터뷰 참여자가 소수로 구성되는 이유는 각 마을미디어 운영자가 소수라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인한 바 크다. 또한 본 연구에서처럼 소수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조직을 대규모로 조사했을지라도 그들 모두를 하나의

표 1. 인터뷰 참여자 개요

구분	소속 마을미디어 조직
가	창신동 덩
나	마포FM
다	성북구 와보송TV
라	성북구 와보송TV

질적 연구방법론의 틀로 답기에는 각 조직마다 지닌 특수성과 차별성이 크기 때문에 그 구체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결국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소수의 조직을 연구범위로 정하게 된다. 이 연구방법은 심층적인 정보들을 밀도 있게 조사하고 해석하면서 각 조직의 특수성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운영자나 활동가뿐 아니라 마을미디어 활동에 정기/부정기적 혹은 일시적/일상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역할을 하는 다수 마을 주민들에 관한 분석 작업이 병행된다면 한층 더 입체적인 연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6. 마을미디어의 생성과 활동

4명의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분석은 두 개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 부분은 사회적 접합에 대한 영역으로, 각 지역의 역사·사회적 맥락 안에서 마을미디어 활동의 잠재적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어 정책, 시민운동조직, 마을 주민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와 힘의 관계들이 결합하여 특정한 마을미디어조직이 형성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질적이고 상충된 이념과 이해관계가 마을미디어 안에서 전략적으로 발휘되고 타협적으로 공존하게 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현실 정치와 정책, 공동체 개발과 공동체 활동 등의 상충적인 원리들이 접합하는 사회적 역동을 살펴본다. 두 번째 부분은 문화적 특이성에 대한 영역이다. 여기에서는 주관적인 경험과 사회관계, 마을미디어의 문화적 감각과 감수성, 위태로운 삶의 현실과 문화정치적인 소수성 등의 주제를 다룬다. 이를 통해 마을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활동가와 마을주민 이용자 모두-이 차이를 포용하면서도 공통적인 집합성을 구성하게 되는 원리를 해석한다.

1) 공동체의 사회적 접합

하나의 마을미디어의 탄생에는 오랜 기간 형성되어 누적되어온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다. 동대문 지역과 창신동 일대는 20세기 초반의 광장시장, 1970년대 평화시장, 1990년대 동대문 패션마켓으로 상징되는 서울의 섬유 공업 및 상업 역사를 체현한다. 전태일 열사의 사건 이후에 1970년대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자 이에 위배될 것을 우려한 공장들이, 법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동대문 공장 지대에서 창신동 주거 지역으로 분산해 들어오는 ‘공간적 해결책’을 시도한다. 좁고 열악한 주거 지역에서 파편화된 노동이 이뤄지면서, 공장보다 더욱 열악하고 궁핍하며 노동운동으로 결집되기 어려운 노동환경이 창신동의 작은 집, 서민 아파트의 방과 지하실 곳곳에 만들어졌다(김지윤, 2015).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흐름 속에서 ‘봉제마을’로 재탄생하고 있는 창신동의 모습 안에 숨겨진 이러한 역사를 이해한다면, 창신동 덩은 한국 근대화의 ‘반역사’(김원, 2006)인 여성 공장 노동자의 궤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열악한 공장 환경에서의 집단 노동이 불법화되면서 파생된 창신동 일대에서는 파편화된 여성 노동 형태가 가내 작업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한 중개인이 농촌에서 젊은 여성들을 단체로 이주시키면, 이들이 열악한 숙소에서 머물며 작업을 하는 방식이 지속되었다. 이렇듯 고립되고 빈곤한 노동환경은 역설적이게도 여성 노동자들끼리 마음을 나누고 사연을 주고받는 소통에 대한 열망을 확장시킨다.

가: 여기는 가내수공업 식으로 봉제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집과, 그리고 집하고 공장하고가 별로 멀지 않아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정도인 분들도 있고. 보통 그니까, ‘동대문 그 여자’ 같은 경우에도, 집 안에 한 방 하나를 공장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남편 이랑 같이 돌이 하시거든요. (……) 봉제 일을 하시는 분한테 동네에서 이렇게 추억이 묻어 있는 장소가 어디냐, 떠오르는 데가 어디냐 라고 물었더니, 이 공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일을 하시느라고 밖에 나간 적이 없어서 (웃음)

이처럼 수십 년간 쌓인 삶의 고통과 추억, 그리고 소통의 열망이라는 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제도, 정책, 시민운동조직, 일반 대중 등의 상이한 힘과 관계들이 접합하여 마을미디어 활동이 가동될 수 있었다. 제도 차원에서 마을라디오는 2005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정책에 촉발되었고 2012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의해 본격화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적 시도가 곧장 마을라디오의 활동을 야기했다고 판단하는 일은 성급하다.

이는 역사적으로 실행되는 집합의 속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모든 지역에서 마을미디어 기획이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닌 반면 창신동 덩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독특한 결실을 맺은 사실이, 집합의 특수성을 시사하는 살아 있는 실례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및 공공기관들의 정책적 차원, 시민운동가들이 도모하는 대안적인 정치적 차원, 새로운 일상의 삶을 원하는 보통 사람들의 회원 등 공동체를 이루는 각기 이질적인 요소들이 역사적인 우발성 안에서 재활성화(Hall, 1996)되었다. 따라서 마을미디어의 출현을 설명할 때 ‘정책 또는 정치’, ‘개발 또는 활동’식의 대립적인 짝패들 중에서 하나의 요소만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양면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들이 접합하면서 마을미디어 활동을 형성했다고 보는 편이 적합하다. 다음의 마포FM(인터뷰 참여자 나)과 성북구의 와보송(인터뷰 참여자 다)의 사례들에서 보듯 마을미디어에 대한 자생적인 바람과 기획이 저변에 깔려 있었을 때, 그리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환경이 추진되면서 마을미디어가 촉발되는 ‘토양’(인터뷰 참여자 다)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나: 처음엔 동네에 이런 라디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마포에 좀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매체 그런 라디오, 마침 방통위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도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라디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준비하면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니까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어떤 훌륭한 도구로서 지역의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그런 게 이제 마포FM의 실질적인 설립 목적이 됐죠.

다: 개국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 방송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2013년도고요, 태동하게 된 건 그 전해 2012년에 그냥 서울시 마을 사업 중에서 미디어 교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 이제 저희는 성북구 내에서 함께하는 성북마당이라고 ‘합성’의 네트워킹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할 건 별로 없었죠, 처음이니까. …… 이제 일단, 저는 마을 만들기 센터 그 큰 공간을 일단 지역이 내놨어요. 주민 센터였는데. 주민센터는 딱 데로 이사 가고 그 4층짜리 공간을 지역의 사회시민단체나 사회적 경제 조직, 그런 데에 내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거기서 모든 것이 이뤄졌거든요. 그렇게 한 것은 일단은 구청장의 의지가 좀 높았던 것도 있어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을공동체도 취재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우리보다도 더 촘촘하게 더 많은 시민 사회 단체들이 있고 역사도 오래된 데가 많아요. 저희가 또 동북 4구끼리 또 친하거든요, 모임도 있고.

마을미디어의 사회적 현실화에는 여러 사회적인 관계, 힘, 전략 등이 연계·연동하며 접합적 특수성을 발효한다. 마을미디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대안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정치’의 결합체다. 바꾸어 말하면 서로 다른 지향과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마을이라는 추상적인 이름 안에 동거하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마을미디어의 활동에는 늘 잠재적으로 차이와 갈등이 내재한다. 이 상황에서 대체로 마을미디어는 안전한 중간지대를 취함으로써 접합의 실천을 일종의 실용적인 전략으로 활용한다. 이 전략은 포용적이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선거 등의 정치문제나 성소수자 집단(인터뷰 참여자 다)과의 관계 등 현존하는 갈등적 현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아예 논외로 차치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마을미디어가 탈정치화되거나 적어도 안온한 위치에 안주하는 인상을 부여받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 근데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그게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웃으면서 이게 명색에 미디어라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에 나오는 게,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구의원이나 시의원 일체 방송, 뉴스에는 안했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구청장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구청장 줄줄 따라다니면서 그 행사마다 그걸 뉴스에 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또 그것도 배제하고 안 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두 사람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저희가, 근데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의회 들어가서 구의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중계하듯이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조금 더 그건 힘이 좀 더 생겨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제일 관심이 많고 좋긋하는 거는 사실 재개발이죠.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재개발 문제를 다룬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이제 역량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해결도 없잖아요. ……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거를 또 그곳 주민들 중에서 또 이제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선, 우리가 그거를 찍으러 가고 이러면 이제 그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저희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아주 그냥 자기 삶하고 가장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성북구가 재개발이 제일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나오면 뭐 제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다룰 영역이 아니고.

마을미디어 내부적으로도 계층적·이념적 차이들이 존재한다. 이 점에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접합의 이면에는 탈구 현상이 실재한다. 이를테면 대한 주민들의 담론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대 주민공동체’ 같은 경계 구분 표현이 습관적으로 사용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고 관변단체와 가깝고 기득권을 가졌으며 대체로 연령층이 높은, ‘명예와 자부심’을 중요시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된다. 이와 달리 주민은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 적지만 자생적인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를 열망하는, ‘가슴이 뜨거운’ 이들, 즉 자신을 가리킨다.

가: 저는 유지분과 원주민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욕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배타적이세요. (연구자: 여기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땅을 가지고 계시거나...) 네. 집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어떤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무슨 직능단체장도 하시면 뭐 이런 분들은 가슴이 뜨겁진 않으니 하여튼 그 뭔가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명예 같은 게 중요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단체가 들어올 때는 애네가 뭐하는 애들인가. 원순빠인가. (웃음) 막 이런 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막 보고 계시고. 라디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또 이런 단체들 막 들어오고 그랬을 때 배타적이셨어요. 상당히. 상당히 배타적... 지금도 배타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공금 받아먹는, 세금 받아먹는, 와서 농땡이 치는, 세금 받아먹고 농땡이 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으세요. 그런 식으로 오해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긴장의 눈초리, 힘이 나뉘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 기존에 어떤 기득권을 잃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 같은 거구나,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분들하고도 계속 관계를 해나가니까 지금은 좀 매끄러워졌거든요. 매끄러워지고 이제 조금씩은 저는 지금도 이제 조금 조심조심. 하하호호 하면서 ‘아, 네~!’ 하는데 그 탱크 같은 여인은 막 쳐들어가는 스타일이라. (웃음)

마포FM의 경우 마포지역의 동/서, 보수/진보, 관변단체/자발적인 주민단체의 긴장이 늘 있기에 그 안에서 온건하게 진보적인 방향을 취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입장의 관변단체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기획이 원래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존재했던 마을만들기 입장과 새로이 등장한 마을공동체 입장이 충돌하였다. 양쪽 입장을 조율하는 노력이 있어왔지만, “마포FM은 빨갱이”라는 인식이 상존한다. 이처럼 대립적인 이념적 지형에서 중간성, 포용성, 유연성을 발휘하는 ‘줄타기’ 방식이 마을미디어의 실용적인 전략으로 취해진다.

나: 네 애증관계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의 직원들이나 국장 뭐..., 어, 이렇게 간부들

급이나 뭐 이런 하고는 관계 괜찮고, 구의원들하고도 그렇게 관계는 썩 나쁘진 않아요. 마포FM이 어... 약간 성향으로는 약간 이제 진보 쪽에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나 뭐 이런 구의원들이 좀 싫어하긴 해요. 네, 뭐, 하지만 같이할 수 있는 건 같이하고 일단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니까 그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출타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왼쪽, 진보 쪽에 가까운 활동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철이나 이쪽에 새누리당이나 이런 여권에서 보기에는 “재들은 객관성을 약간 상실하지는 않았나” (웃음)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조금 있고, 일부는 지역단체하고 일을 할 때에는 또 지역단체들은 대개 이제 진보적인 단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가서는 그렇다고 진보 쪽에 확해가지고 또 일을 같이하기도 굉장히 좀 어정쩡한 그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모여서 된 일을 할 때는 거기의 시점으로 보서는 상당히 오른쪽에 좀, 네,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인거죠. 그런 어... 위치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따라서 (.....) 주민자치회의 마을 만들기, 그리고 마을공동체 쪽의 교류, 적어도 교류,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올해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양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자. 해서 2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9월이나 10월에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마포FM의 주도하에서.

대립적인 이념 지형에서 생존하며 나름의 길을 만들어가는 마을미디어 조직의 정치적 전략에 주목할 수 있다. 서울에서 최근 급성장한 마을공동체에 대해 평가가 갈리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보는 관점에 따라 마을공동체는 진보적인 신사회운동의 하나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기획의 산물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백영민 외, 2016). 그러나 이 현상은 긍정과 부정, 정치운동과 정책산물이라는 틀에 박힌 이분법을 넘어서는 접합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재하고 혼용하는 가운데 진행된 혼종적이고 절충적인 움직임으로서 마을공동체는 생성·가동된다. 즉 마을 ‘정책’과 마을 ‘정치’의 결합이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동하는 주요 기반이 되었다고 본다면, 정책과 정치가 항상 조화롭게 결합되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향적이고 전략적인 정책과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정치가 충돌하고 마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아니, 바로 이러한 갈등과 긴장의 경계와 틈이 공동체 활동이 계속 개진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이 된다. 더 나아가 공동체 활동가들은 서로 다른 힘들이 교차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가급적 유리하고 선한 기회를 취하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한다.

마지막으로 마을미디어가 항상 건강하게 유지되거나 본래의 속성이 지속되리라는 낙

관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작용한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는 개념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마을미디어에 대한 공공 정책은 영리화를 비롯한 경제적 요구와 맞물려 있다. 수익을 창출하여 자생하라는 서울시장의 요구가 대표적이다. 한편 마을미디어 조직의 차원에서도 너무 ‘빡센 결합’ 조건 속에서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때로는 마을미디어를 브랜드로 활용하려는 기업이나 사회조직들이 소위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한다.

가: 한 명은 저고, 두 명은 봉제인이시고, 다 50대 봉제인 두 분이셨어요. 봉제일을 30여 년 하시는 분이셨고요. 한 명은 40대 주부세요. 그래서 계속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때 때마침 딱 이제 직장을 좀 쉬고 있던 시기여서 완전 올인을 하셨었어요. 미친 듯이 올인을 하셨었죠. 그러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엄청 열심히 달리고 완전 연소하고 두 분이 사라지셨어요. …… 한 분은 또 탱크 같은 여인네, 지금까지 같이하고 있는, 봉제일 하시는 분 중에 봉제 방송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은 완전히 탱크 같은 여인네여가지고 제가 올리면 다 반응을 해주세요. 일을 하다가도, 미싱질을 하다가도 다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로 반응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만큼 결합을 못 하시니까. 그분은 객관적인 조건이 달랐거든요. 이분은 집에서 남편 분 없이 애들 둘을 다 키우시면서 봉제를 하셔야 하니까 더 강도 있게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까지 반응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그게 자꾸 스트레스가 되셨던 거죠. 그러가지고 결국엔 어쨌든 그분들이 내린 결론은 어떤 성격차이, 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밑바닥으로 있었던 것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조건에 비해서 너무 빡세게 결합이 됐었다. 그게 나중에 되게 반성이 됐었죠, 제가.

다: 그게 지금 굉장히 저희가. 저희를 보고 SK 사업 전략팀인가 거기에서 그분들이 우리가 연구대상이었나 봐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북을 떠나서 마을 방송으로 가고 와보송이라는 브랜드가 자기들에게는 상당히 좋다고 하면서, 성북이라고 하지 말고 마을 방송으로 하라고.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 그게 없으니까 사업 쪽으로 가라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이런 게 수익 사업이에요, 저기 북정마을을 1년 동안 촬영을 해가지고 그게 열린 채널에 됐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 거의 600만 원인가 받았어요, 또.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야, 우리 분 수를 좀 늘리자, 1분에 6만 원이라니까 이러면서 농담 삼아. (웃음)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이렇게 사업 쪽으로. 근데 이제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업적으

로 하면 순수하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없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구자: SK에서는 지금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지금은 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이게 일단은 처음에 컨설팅을 붙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컨설팅을 받으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선 운영 경영 쪽에 대한 마인드를 좀 체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저한테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지금 어저께도 준비 모임 할 때 잠깐 얘기를 비쳤는데, “그냥 연말까지는 우리가 해보자,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밀어붙이진 않거든요.

이처럼 마을미디어에 대한 순수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현실적인 힘들어 요구나 유혹으로 존재한다. 서울시는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생을 위한 이익 창출을 요구하고, 기업은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마을미디어를 상품화하고 싶어 한다. 정책의 모순과 현실적 어려움, 기업권력의 유혹과 조직의 자율성이라는 상충적인 가치 사이에서, 마을미디어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황에 있다.

지금까지 마을미디어의 사회적 발명을 접합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정부, 기업과 공공기관, 일반 주민들의 욕망, 이해관계, 필요가 결합하면서 특정한 방식의 마을미디어 조직이 형성,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현실에서 접합과 탈구 작용이 공존하고 있음을 관찰했다. 정책과 대안적 시민정치, 사업적 접근과 공공적 가치가 길항하고 공존하며 그 중첩 지점에 마을미디어가 위치하고 있다. 상이하고 때로는 대립적인 정치적 이념 및 이해관계 안에서 마을미디어는 대체로 타협의 전략을 취하는데, 이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서울시의 통치권력과 참여하는 대중권력을 매개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 매개효과는 양면적이어서 유연하면서도 실용적인 이점을 지니지만 공동체가 자칫 탈정치화하는 경향을 낳을 수 있다. 이렇듯 접합의 조건이란 곧 탈구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에, 균열과 마찰의 상황에서 공동체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험과 감각의 공유를 통한 공통성의 생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 점에서 이어지는 절에서는 공동체의 문화적 측면을 탐구하겠다.

2) 공동체의 문화적 특이성

마을미디어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는 현실에 있다. 특히 삶의 피로와 고통 속에서 찢긴 존재들이 마을미디어의 장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신동 텀의 경우 현재 지속되는 중장년 여성들의 위태로운(precarius) 삶의 현실이 중요한 결을 이룬다. 창신동 텀의 참여자들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거나 휴직과 구직을 거

듬해왔다. 이렇게 본다면 창신동 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휘청거리는 근대화 의 면에서 위태롭지만 강인하게 살아온 여성들의 삶 속에서 생성되었다. 그리고 실제 라디오 방송의 다성적인 목소리를 제공하며 참여하는 여성들 역시 ‘마이너스 통장’이나 ‘무급 휴가’로 대변되는 왜곡된 봉제노동구조에 종속되어 있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에서 ‘아름다움’ (인터뷰 참여자 ‘가’)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마을미디어 활동으로 전향하도록 이끌었다. 삶의 위태로움이 발화하면서 풍요로운 기억으로 재생되는 것이다.

가: NGO 단체에서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마을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창신 마을넷>이라는 네트워크모임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마을과 관련된 스터디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 마을 활동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한 1년 정도를 그냥 스터디 하면서 보낸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박박 다 긁어 쓴 다음에 엄청난 슬럼프. 그때 딱 40 넘을 땐데 엄청난 슬럼프와 더불어 제가 일단 살아남아야겠다, 그걸로 마음을 바꿨죠. 그래서 일단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이제 보험가입하고 (웃음) 이제 직장 구하기 전에 보험가입하고 이제 적금 먼저 든 다음에. 이제 완전 배수진을 치고 직장을 구했어요. 직장 생활을 딱 시작하고 이제 생계, 이제 빚 갚아나가면서, 생계는 걱정 없겠다 딱 생각되니까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 밥 먹고 살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내 삶에 아름다운 부분이 한 부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딱 정리되니까 주말을 활용한, 너무 빠세지 않은, 좀 아름다운 활동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정리가 됐어요. …… 프로젝트를 겁나게 써가지고 어떻게든 생계비가 나오게 만들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사장님이 때마침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웃음) 한 3개월만 무급 휴가 받으면 안 되냐고 (웃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사퇴했어요.

다: 제가 놀란 거는 마을, 거 마을공동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서 보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시는 거 보고. 어머. 반성도 되고. 이렇게 사시면서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마을 사업하시는. 이번엔 마을 기업도 됐는데. 거기에 엄마들도 저는 막 다들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런 중산층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막 어디 알바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죠. 마을공동체 사업에 공모하시는 분들. 물론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다 취약 계층이고 성북구에서 협동조합 많이 하시고, 많이 오는 분들이 사실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취약계층이에요. 그리

고 왜 개인사업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좀 뭐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경제적으로는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더 이것을 해보려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가 좀 여기 오면 뭐가 보이지 않을까.

이어 마을미디어의 주체적 개시는 관계적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에 분유와 소통이 중요한 매개가 된다. 이미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개인들 사이의 교류가 아닌, 불완전하고 열려 있는 주체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 공동-내-존재가 되어간다. 소통과 분유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호적인 교육과 각성이 마을미디어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은 주중에는 생업을 하는 가운데 방송 교육을 틈틈이 받아가면서, 정기적인 라디오 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 활동가, 시청자, 교육가의 활동을 서로 겸하고 의미의 '생산자'(Benjamin, 1978)가 되면서 자유롭게 역할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는 각자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고 기억해주는 '산 증인'이 된다(인터뷰 참여자 가).

가: 1월 29일에 첫 방송이 나갔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2012년에 하반기에, 6월부터인가요. <우리말 미디어 문화 교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1기, 2기 교육을 진행을 했죠. …… 저희가 1기 때는 저희들이 한마디로 되게 잘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판 깔아놓고 놀았어요. …… 이제 2기가 끝난 다음에는 긴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도 생소하고 그리고 강사, 보조 강사 다 지원이 나오다가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긴 했으나 제가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강사진이 다 싹 빠져나가면 저 혼자 남잖아요. …… 그래서 엄청 긴장이 돼서 제가 엄청 고민을 하고 2기 때 판을 깔 때는 세팅을 해주는 형태 말고 멤버들이 굉장히 좀 강도 있게 결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세팅을 했어요. …… 짧고 강렬한 아름다운 추억인 거하고 이게 매주 방송이 나가는 거하고 너무 다른 느낌이라서 엄청 고민을 하고, 제가 많이 흔들렸는데 근데 어쨌든 연말에 1년 돌아보는 마을미디어 축제 때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축제 참여하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힘을 더 내게 됐죠. 일단 가보자. 갈 수 있는 만큼 가보자. 그냥 앞에 걱정하거나 너무 그 사명에 불타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렇게 그때 결의를 하고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다: 미디어 교실 4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2기 때 교육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살림에서 조금 하셨던 분이데. 그분이 이제 운영자까지 할 줄은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주도해서 리더인 거잖아요. 운영자라는 거는. 리더가 돼서 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도 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잊지 못하는 거는 어떤 엄마가 작년에 앵커 할 때 앵커 이제 다 하시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에 너무 내 가족과 내 아이들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이렇게 와서 활동을 보니까는 아, 이렇게 또 마을공동체, 이렇게 이웃과 이렇게 더불어 사는 거에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자극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와보송에서 뭐 할 때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어렸을 때 목소리가 좋아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앵커를 하면서 자기도 되게 행복했대요. 이제 그걸 성취했는데. 저는 마을미디어가 바로 그 거기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평범하게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서 아, 이웃이 이렇게 있고 이런 거를 느끼게끔 해주는 그 계기를 주는 거는 되게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지금 보조강사하시는 분도 집에서 애만 키우고 별로 그걸 안 하셨는데 오히려 역량이 있으셔서. 활동가로 이제 앞으로 하실 건데 그런 경우 있어요.

마포FM의 경우에도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라는 점에서 교육을 통한 참여가 중요하다. 교육은 결핍되고 상처 안은 존재들이 서로 섞이고 도우면서 집합적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아래의 사례는 빈곤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 사건 이후, 프로그램 제작 교육이 바탕이 되어 주민 참여 속에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과정을 알려준다.

나: 저희 방송국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고. 지역에 축제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공개 방송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그럴 때 지역 주민들이 같이 결합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지난해에 구청 앞에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2012년도 여름에 굉장히 연쇄적으로 이렇게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거의 한 세 달 동안 8명이 연쇄로 자살을 했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알게 됐죠. (……) 저희가 마포 일이라는 걸 알고서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방송으로 얘기할 건 거의 카톡에도 뭐 거의 카톡이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도 제가 또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았고 그래서 “그 마을, 그 아파트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해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해서 저희는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죠. 그 프로그램을 격주에 한 번씩 방송 프로그램을 했었고. 지난해 세 번 정도를 공개방송 형식으로 축제 같을 걸 했었죠. 아파트 안에서. ……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었고 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미디어 교육 활동이라고 해서 저희 방송국에 이제 교육팀에서 거기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한 3년 정도 관계를 맺고서 미래 교육을 해왔었어요. …… 그때 라디오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을 모아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직접 프로그램 제작을 기획하기까지는 저희랑 같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구조를 짜주고 그리고 직접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쪽 했었던 거고요.

점차 마을공동체와 마을미디어는 소통과 분유를 통해 서로 형성하는 흐름을 만들어 간다. 마포FM이라는 마을미디어는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와 함께 호흡하고 활동한다. “네트워크에 직접 들어가서, 그리고 네트워크들의 그런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하면서 직접 활동”(인터뷰 참여자 나)하는 식으로 마을의 ‘공동체’와 ‘미디어’가 융합되어 간다. 존재와 소통이 상호작용하면서, 존재는 소통을 필요로 하고 소통은 존재를 활성화한다. 이질적인 요소들이 뭉치고 섞이면서, 갈등을 함축·포용하고 상처와 재생의 흔적을 축적하며 공동체의 미디어로 성숙된다.

나: 그렇죠.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 네트워크들. 이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뒀어요. 매체로서의 객관적인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는데. 그 거리를 대폭 줄여버렸죠. 이제 거의는 뭐 네트워크와 같이. (……) 제가 직접 취재를 하러 나가기도 하지만, 또 직접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의 여러 상황들을 조망해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시민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도, 구나 구의회가 돌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다른 지역 관련 단체들의 모습, 이런 것까지 다 조망하게 되는 이런 위치에 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마포의 어떤 지역 의제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면 하는 것들이 보이는,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보이는 거죠. …… 직접,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걸 직접 지역의 네트워크들에 전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뭐 그 마을넷, 마포마을넷의 운영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되는 모습들을 보이죠.

소통과 분유를 통한 마을미디어의 집합적 경험 속에서 생산자와 이용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감수성이 형성된다. 흥미롭게도 각자의 문화적 감수성은 마을미디어가 자리한 장소성에 배태되어 있는 동시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몸들이 체현하는 소수성을 발현한다. 이때 마을미디어를 통해 말하는 주체만큼이나 함께 보고 듣는 수용의 집합성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의 독특한 감각 양식이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창신동 텀의 경우 첨단 개인미디어라고 간주되는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이용한 방송 듣기 행위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면서 이어폰을 꽂고 듣기란 불가능하고,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각개로 방송을 듣는 일은 그다지 재미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적으로 다 함께 듣는 방식인 ‘스피커를 통한 라디오 방송 청취’가 선호된다. 이러한 독특한 미디어 행위는 소통에 함축된 공통성과 집합성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가: 봉제인들은 라디오를 듣지 팟캐스트를 듣지 않으세요. 팟캐스트 들으려면 스마트폰에 어플 깔아가시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틀고서 스피커를 연결해가지고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 그래서 지금 어떤 송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우리가 시장 쪽 같은데, 이 팟캐스트 한계는 뭐냐면 동시 송출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내걸 때 이어폰 끼고서 듣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떤 여론 형성이나 사람들 분위기가 확 형성되는 거가 안 돼요. 그래서 시장에다 스피커를, 시장이랑 미용실, 공장, 좀 큰 데 몇 군데를 스피커를 달고 시장 같은 경우는 동시송출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올해 목표 중의 하나예요.

또 다른 예로 성북구의 와보송 TV는 지역의 성격에 맞게 가족의 참여가 활발하다. 실질적인 자원이 부족하므로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다들’ 하고 싶어 하고 참여하는 방식이 촉발될 수 있었다. 궁핍 안에서 사람들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한 자발적인 ‘자산’이 되기를 자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 우리 좋아하는 영상물만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때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 뉴스를 시작했는데, 뉴스가 이제 사실은 ‘모든 주민은 앵커다’가 저희 슬로건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뻘 돈도 없고 지원금 받는 것도 없었으니까 매번 앵커를 쓰려면 적어도 수고비를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집단 지성의 힘이 대단하다는 게, 그러면 이제 의견이 나올 거 아니예요, 회의를 할 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모

든 주민은 앵커다 해가지고 모두 하자! 첫 회 때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시니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학생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도리어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뉴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아기를 안고 나와서도 하고, 그리고 다들 하고 싶어 해요. 옛날에 엄마들이 뉴스 아나운서 하고 싶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웃음) 또 중·고등학교 애들, 여자애들이 앵커가 또 되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때 저희가 따로 기획으로 아빠들의 수다를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상당히 재밌게 했죠. 7회, 8회까지 했는데, 음 그러면서 동력이 좀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동안에 다들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받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와보송의 생명이 앞으로도 계속, 그 기간이 저희에게 큰 자산이다.

한편, 마포FM의 경우 주된 활동 집단은 청년 집단이다. 따라서 창신동이나 성북구처럼 정주하는 삶의 동질성보다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젊은 정신이 발휘하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문화적 감성이 마포FM의 주된 결을 이룬다.

나: 저희가 초기에 방송국을 처음에 딱 하고서 그때 이제 자원봉사로 방송 프로그램 만들 분들을 공개모집 했었거든요. 그때 한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첫 소집을 할 때, 다른 데서도 굉장히 늘렸었거든요. …… 그냥 있어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는 대상들은 대개 젊은 층이고 학생들이 좀 많고. (……) 제가 보기엔 홍대 앞의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홍대 앞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가 있거든요. 사실 요즘은 여성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많이 피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홍대 앞에서만 그게 가능했거든요. 홍대 앞에서는 여성들이 담배 피도 그게 별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홍대를 벗어나면 그게 별다른 일이 되죠. 아니, 어떻게 길거리에서 여자가 담배를 피나 이랬는데, 그런 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들. 그 문화가 홍대에 있다가 홍대가 점차 지금 팽창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역으로 좀 뻗어 나가는 거죠. 어떤 홍대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어졌고 그런 문화가 이제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마포에 와서 동지를 틀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마포에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그런 문화나 분위기?

홍대 앞 문화가 중핵을 이루는 점과 관련지어서, 마포FM에서는 하나의 동질성보다는 그 안의 다양성, 더 나아가 연령, 성적 지향, 문화적 취향 등의 여러 범주에서 소수성을 추구하는 활동이 활발하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지역적 정주민과 문화적 유목민들이 자

연스럽게 섞이는 지형을 구성한다. 일례로 가정에 머무는 30~50대 여성이나 마포구 지역에 밀집한 중소 규모 출판사 직원부터 인디나 소수문화를 추구하는 타 지역의 젊은이들이 마포FM의 주된 청취자 집단을 이루고 있다.

나: 낮 시간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주부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30대 중후반에서부터 50대 초반의 주부들이 저희 제일 첫 번째 타겟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대나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10%가 마포 이쪽에 모여 있기도 하고요. 그 출판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작은 작은 회사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데에 근무하는 20대에서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층이 그다음 타겟이에요. …… 저희 방송국이 기본적으로 소수자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방송국이라서. 노인 분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성소수자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습, 그것도 그렇고요.

또한 미디어 양식과 문화 장르 측면에서 젊은 세대성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여타 마을미디어들과 달리 마포FM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팟캐스팅이 비교적 활발히 이용되고 인디 음악이 가장 애용되는 장르다. 이러한 마을미디어 이용 특징 역시 마포FM이 위치한 홍대 앞 문화와 관련이 깊다. 홍대 앞 문화는 물리적 장소 못지않게 젊은 세대성 및 인디 문화의 정신으로 정체화된 공간이다. 이처럼 젊은-인디 문화 자체가 바로 홍대 앞 문화공간의 질료이므로 물리적 지역성뿐 아니라 세대성과 결합된 지역적 문화코드가 마포FM 마을공동체의 특징으로 응결되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점차 상업화가 심화되는 홍대 앞 문화의 주류가 아닌, 홍대 앞 문화의 비주류로서의 마포FM의 자기 위치성이다. 즉 유명한 인디처럼 ‘주변성의 중심’이 아니라 즉 여러 겹으로 주변화된 ‘주변성의 주변’, 소위 ‘인디의 인디의 인디’를 지향한다.

나: 제일 반응이 좋은 거는 음악 프로그램. 젊은 층이 듣는 음악 프로그램이 제일 많아요. …… 근데 인디 음악은 저희 방송국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에서는 인디 음악을 안 하잖아요. 인디 음악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 방송국이 인디 음악 중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은, 이런 사람들이 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인디음악, 인디 중에서도, 인디의 인디가 있고 인디의 인디의 인디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저희는 이제 그 중간 정도 되는 친구들이 와서 직접 방송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

친구들이 이제 팬층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팬들이 다 와서 방송을 듣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인디음악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인터넷이나 팟빵을 통해서 듣는 친구들이 있고. …… 마포에는 가장 문화적으로 어떤 뛰어난 게 인디문화거든요. 홍대 앞 인디문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고이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대 앞에 있는 문화 예술인들과의 어떤, 같은 결합이라든지 인디음악 프로그램, 인디 음악인들 하고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방송국에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인디음악 프로그램, 아니면 뭐 〈L양장점〉 같은 그 성소수자 프로그램, 〈L양장점〉 같은 프로그램은 그것도 우리나라 하나뿐이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성소수자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이 유일해요. 팟캐스팅도 없어요. 성소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은 라디오로 청취하기보다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방송하고 그 소스를 커뮤니티에 올리거든요. 거기서도 청취가 더 많이 일어나죠. 그쪽은 이제 파로클럽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따로 하죠.

마포FM은 소수자들이 서로 말하고 들을 기회를 열어놓는 공간 자체로 중요하다. 그래서 마포FM이 인디 음악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지만 인디음악인이나 성소수자들은 제작자나 DJ로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타인과 나누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마을미디어들이 전개하는 소수성의 문화는 소수성의 문화정치 및 사회운동으로 확장한다. 혹은 소수성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소수성의 정치에 관계를 맺고 있다 (Deleuze & Guattari, 1975/2001). 대표적인 사례로 마포 지역에서 발생했던 ‘두리반 사건’과 ‘아현 뉴타운 개발사건’이 있다. 두 사건 모두 건축물 철거와 개발이라는 자본주의적 도시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마포FM은 철거와 봉쇄로 고통을 당하는 거주 당사자들에게 매일 전화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했다.

나: (아현 뉴타운 개발 사건에서) 조합 쪽에서 그동안 그 사람들이 출입했던 출입구가 있었는데, 출입을 못 하게 아예 봉쇄버린 거예요. 낱땀 해서. 출입로는 포클레인으로 뒤집어놓고, 사람을 아예 그 안에 가둬버리고, 31일에, 그것을 1월 2일인가 3일인가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개구멍, 간신히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방송에서 고민 많이 했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매일 방송을, 매일 방송으로 연결을 하자. 아침에 제가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군데에 3분에서 5분씩 전화 연결을 했었고요. 그거는 뭐, 별거 없었어요. 전화인

터뷰였어요.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습니까? 추우신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런 정도. 추위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두리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뒀. 대로변에 있었으니까 사람이, 지연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역의 인디 밴드들도 결합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게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쪽에 아현 3구역은 다시 길이 만들어지고 펜스가 쳐지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인터뷰 계속했던 아주머니가 사실 펜스가 완전히 감히고 그러면서 저희가 다 진정을 해봤거든요. 서울시, 서울시경, 청와대까지도 진정을 다 넣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조치하고 연락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아무데도 연락이 안 왔는데. 마포FM만 계속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고 그래도 어떻게 길이 만들어지고 통로가 생기는 날도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마포FM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 그게 사실 지역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요.

다른 연구들에서는 창신동 여성 중심으로 전개되는 마을공동체와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해 유희적이고 조화로운 성격이 설명되었다(예를 들어, 강진숙·이은비, 2013).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위태성과 정치적 복잡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역학 안에서 고투하며 격려하며, 또 그 자체 끊임없는 갈등과 변화를 거치면서 스스로 되어가는 마을공동체의 현실성을 주목했다. 완전하고 단독적인 개인이 아니라 상처로 찢긴 불완전한 존재들이 서로에게 열린 공동체로 되어감을 알 수 있었다. 의미심장하게도 ‘창신동 댐’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멋모르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댐으로 오는 게 되게 많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아울러 ‘바보’라는 뜻의 댐의 어감도 살아 있는데, 이렇게 각자의 (잘남이 아니라) 모자람들이 불어나고 공유되는 댐이 ‘모두가 해피한 제목’이라고 기쁘게 수용된다(인터뷰 참여자 나). 또한 마포FM이 마을공동체와 결합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도 지역의 ‘찢긴 상처’를 알리고 나누면서 갱생을 시도했던 노력이 주요하다. 두리반 사건도, 철거사건도, 연쇄자살사건도 유복하고 안정된 지역이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폭력에 대해, 그리고 주류 미디어라면 관심을 두지 않았을 고통에 대해 듣고 말하는 소통을 하고자 했고 그 바탕 위에서 공동체가 되어갔다. 이러한 노력은 소수성의 문화정치로 발전한다.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존재들의 분유와 소통을 통한 도래하는 공동체의 생성을 예시한다. 고립과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비판적 개입”(Howley, 2005, p. 2)을 통해 “소통적 민주주의”(Hackett, 2000: Howley, 2005, p. 2 재인용)를 위한 투쟁을 벌이는 마을미디어 고유의 통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을미디어의 활동을 통해 이에 참여하는 이들의 주체성, 문화적 감수성, 집

합적 소수성이 생성·공유되며 마을공동체의 문화적 특이성이 형성되는 방식을 읽을 수 있다. 위태롭고 가난한 주체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표현하면서 스스로, 그리고 서로 공동체로 되어가는 과정이기에, 마을공동체는 이미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늘 도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을미디어 형성의 한 축인 제도, 정책, 기관과 조직 등의 요소들이 사회적 보편성의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개인적 상황, 장소성, 소통과 분유는 각 마을미디어의 문화적 특이성을 살리는 요소들로 유의미하다. 성북구의 와보송TV가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실어 나르고 창신동의 텃밭이 공장에서 일하는 중년여성들의 고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포FM이 젊은 세대들의 하위문화와 소수성의 정념들을 담은 소리와 이미지를 발현하는 모습들이 마을미디어의 문화적 특이성을 알려준다. 또한 미디어 실천의 감각에 있어서도 개인적이고 이동적인 흐름(예를 들어 마포FM) 또는 집합적이고 정적인 흐름(창신동 텃밭과 와보송TV) 등의 양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습관화되면서 각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감수성으로 성장한다. 마지막으로 마을마다 지닌 행복감과 충만함뿐 아니라, 더욱 현실적으로는, 고통과 고난이 마을공동체 문화적 특수성의 중요한 정신을 구성한다. 위태로운 삶을 지닌 여인들(창신동 텃밭), 가난한 일상을 짊어진 주민들(성북구 와보송), 삶과 죽음의 경계에 불안하게 걸쳐 있는 가운데 소수성의 감수성을 활달하게 발산하는 젊은이들(마포FM)이 마을미디어가 지닌 문화적 특이성의 내용이 되고 의미를 이루며 실천의 동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7. 맺으며

이 연구는 식민의 역사, 전쟁, 급격한 근대화를 거치며 공동체적 삶의 경험과 기억이 대부분 사라져가는 오늘날의 서울에서 최근 등장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주요 논점은 공동체란 흔히 생각되듯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명된다는 주장이다.

객관적인 맥락 요인과 조건들이 접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 삶의 가치, 고통, 환희, 고통을 경험·표현·공유하기 위해 마을미디어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되어간다. 이 같은 사회적 보편성과 문화적 특이성의 차원들에서 공동체는 발명된다고 혹은 스스로 발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접근은 과거에 존재한 조화로운 동질체를 상상하는 낭만화된 공동체 인식과 구별된다. 그 대신에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에 관한 관점 전환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자연적 소여'에서 '사회적 구성'으로, '과거

적 유산'에서 '현재 진행적인 흐름'으로, '고정된 지역성'에서 '장소성의 경험'으로, '본질적인 대상'에서 '과정적인 실천'으로, '동질적인 만족'에서 '차이의 경험'으로, 주어진 '소속감'에서 '되어가기의 창발'로 시선 확장을 제안했다.

창신동 덩, 마포FM, 성북구의 와보송TV는 서울에서 활동이 두드러진 마을미디어 조직들이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으로, 서울의 정책과 주민 자발적인 참여 정치의 결합, 계층적·이념적 대립의 경계와 틈에서 벌이는 타협과 융통의 조율 진술, 지역 내 현존하는 곤궁과 고통의 포용, 참여적이고 표현적인 소통과 공동체적 존재성의 상호 생성 등의 접합성이 핵심이다. 한편, 장소의 특수성이 마을미디어의 문화적 특이성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서울의 근대화와 노동의 역사를 씨줄과 날줄로 하여 잣고 키운 창신동 덩, 취약계층 가족의 일상문화가 표현되는 성북구의 와보송TV, 역동적이고 탈지역적이며 젊은 문화 감수성이 동력이 되는 마포FM는 도래하는 공동체들이 지니는 임의성과 특이성의 가치를 각기 보여준다(Agamben, 1990/2014). 그리고 주변성과 소수성이 공유, 공감되고 회한과 환희를 안은 자기 증언 및 표현의 목소리(Couldry, 2010)로 발화되는 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알려준다.

마을미디어에 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공동체의 생성 원리는 본질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하나이지도 않으며 각기 고유성과 서로 간의 상이성을 띠는 점, 둘째, 공동체 생성에 있어 역사적 맥락성, 사회적 조건성, 문화적 정향성, 주체의 의지와 열망의 접합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 셋째, 공동체의 형성에는 상이한 권력과 욕망이 전략적으로 연동한다는 점, 넷째, 공동체의 생성은 공동체의 활동 특히 소통적인 활동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공동체는 곧 소통과 동의어(Nancy, 1986/2010)라는 점, 다섯째, 공동체는 사회의 순조건 안에서 배양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태성, 부정성, 한계성을 껴안으며 되어가는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고유한 감수성과 표현성을 생성하면서 특이한 문화적 언어를 표현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동질적이고 동질적 총체(homogeneous entity)로 단순화하는 대신, 이질적인 타자들 사이의 접촉과 해리, 수렴과 발산, 동일성과 차이의 계속되는 역동으로서 공동체를 개념화할 수 있다.

물론 서울시 마을공동체들은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현안들을 지니고 있다. 재정난, 노동 불안정성, 인력부족 같은 항상적인 문제점과 함께, 공적 지원의 협소함, 구성원 간 이념 및 계층 갈등, 현실정치에 대한 취약성 등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특유의 한계점이 지적된다. 또한 공동체 형성의 주요 동력으로 해석된 소통활동에 있어서도 소통미디어의 제도화 및 공공화를 둘러싼 긴장,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의 가능성 확대는 마을미디어가 계속 노력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채영길·김용찬·백영민·김예란·김유정, 2016). 그

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추진해가는 창의성과 인내다. 도래하는 공동체에 대한 아감벤의 사유가 알려주듯, 그 자체로서 인정되고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삶을 발명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문헌

- 강진숙·이은비 (2013). 공동체라디오 DJ의 미메시스적 실천과 유희성 연구: 창신동 라디오방송국 <덤>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5(2), 37-66.
- 경향신문 (2016, 9, 4-2014, 9, 25). 우리 마을이 답이다. (6회 연재기사물).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serial_list.html?s_code=ak275
- 김대천 (2012). 마을공동체 첫 포럼, '마을포럼: 마을운동, 시대정신과 방향을 묻는다' 열린다. URL: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65136>
- 김원 (2006).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이매진 컨텍스트.
- 김예란 (2016). Community as social invention. Communication and the city: The role of community conference 발표문. Seoul.
- 김지윤 (2015). '봉제마을' 창신동: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의 엇박자. <도시연구>, 14호, 125-157.
- 김희영 (2014). '마을미디어 현황과 과제: 지역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미디어생태계를 꿈꾸며!'. 미디어엑트 개관 12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자료집. <전국 마을미디어 팔도유람>. 7-23.
-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3권 1호, 7-43.
- 반명진·김영찬 (2016).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장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8호, 79-114.
- 백영민·김용찬·채영길·김유정·김예란 (2016). 시민들의 가치지향, 정치적 이념성향,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 관계: 서울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7권 1호, 239-263.
- 신현준·이기웅 (2016).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푸른숲.
- 유창복 (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마을과 행정 사이를 오가며 짚아가 들려주는 마을살이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 유창복 (2015). 남경필·원희룡도 배우는 이 남자의 노하우.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2190
- 채영길·김용찬·백영민·김예란·김유정 (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 공론장의 분화와 재구성. <커뮤니케이션 이론>, 12권 2호, 4-46.
- Agamben, G. (1990). *La comunita che viene*. 이경진 (역) (2014). <도래하는 공동체>. 꾸리에.
- Anderson, B.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 Benjamin, W. (1978). The author as producer. *Reflections* (pp. 220-238). Schocken Books.
- Couldry, N. (2010). *Why voice matters: Culture and politics after neoliberalism*. Sage Publications.
- Deleuze, G., & Guattari, F. (1975). *Kafka: Pour une littérature mineure*. Les éditions de Minuit.
- 이진경 (역) (2001).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동문선.

- Esposito, R. (2010). *Communitas*. Stanford University Press.
-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 other writings 1972-1977*. Pantheon.
- Hackett, R. (2000). 'Taking back the media: Notes on the potential for a communicative democracy movement',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63, 61-86.
- Hall, S. (1996). 'Who needs 'identity''?. In S. Hall & P. du Gay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Sage Publications. 1-17.
- Heidegger, M. (1962). *Being and time*. Blackwell Publishing.
- Howley, K. (2005). *Community media: people, places,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nsen, K. & Jankowsky, N. (1991). *A handbook of qualitative methodologies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김승현 외 (역) (2004). <미디어 연구의 질적 방법론>. 일신사.
- Kim, Y. C. & Ball-Rokeach, S. J. (2006). Community storytelling network, neighborhood context, and neighborhood engagement: A multilevel approach.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2(3), 411-439.
- Nancy, J.L. (1986). *La communauté désœuvrée*. 박준상 (역) (2010). <무위의 공동체>. 인간사랑.
- Rose, N. (1996). The death of the social? Re-figuring the territory of government. *Economy and society*, 25(3), 327-356.
- Shaw, M. (2008). Community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community.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3(1), 24-36.
- Shaw, M., & Martin, I. (2000). Community work, citizenship and democracy.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0(4), 401-413.

투고일자: 2016. 11. 30. 게재확정일자: 2017. 1. 18. 최종수정일자: 2017. 1. 22.

Community Should Be Invented

Focusing on Maeul Media in Seoul

Yeran Kim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Kwangwoon University

Yong Chan Kim

Professor, College of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Young Gil Chae

Associate Professor, Media Communication Divis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oung Min Baek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Eujong Kim

Research Fellow, Programming & Planning Munhwa Broadcasting Corp

Drawn upon the analysis of Seoul community media, this study make six points. The generation of community is not essentially determined but has singularity and differences. Historical context, social conditionality, cultural orientation, and the subjects' will and anticipation bring out certain forms of community. Various power relations and desires are engaged in the formation of community.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 is necessarily and simultaneously mediated with collective acts of communication and sharing. Community is not so much cultivated within society as articulated with precariousness, negativity and limit. Community is able to create its own cultural sensibility and language to express it. Thereby community is a dynamics between articulation and disarticulation, convergency and divergency, similitude and difference living in our actual society.

KEYWORDS Seoul, Maeul Media, Community Media, Articulation, Cultural Singularity